

潘風明點傳師 請一路好走

◎ 中文/韓文：張榕榕

上天想讓我們成長時，會透過逆境教導我們。但上天無意讓我們一蹶不振，只要用心就會發現，祂給予我們逆境的同時，也安排了貴人在身邊。

潘風明點傳師，正是後學人生的貴人。

跟潘點傳師才相識幾年，但是感覺卻好像已認識了好久好久。小時候，就聽父母常提起潘點傳師的故事。長大後，常常都能看到潘點傳師在中堂講道理的樣子；每當看到潘點傳師，就好像看到偶像一般，心裡總是興奮地讚嘆點傳師舉手投足間的風範，以及點傳師從內心所散發出來的謙恭和遜。後來更是緣份，後學接觸到金剛堂，才發現原來潘點傳師的地方班正是金剛堂。

回想那時的心情，除了開心，更感榮幸。

知禮守禮的您

近年來，幾次有幸跟隨點傳師到韓國道場。守禮的潘點傳師每每拜見前人輩時，總是迅速跪下，向前人參駕、請安。初遇這樣的場景，後學驚慌失措地也跟著跪了下來。

後來才知道以前張老前人不捨後學們跪著向他老請安，於是不讓我們向他老跪安。而後學學習不足，所以根本不知道這基本的禮節。但生長在與我們相同道場環境下的潘點傳師，卻與我們不同，能如此知禮、守禮。

當後學看著靈堂內潘點傳師的照片時，在心中第一個浮現的是他謙恭行禮的模樣。回觀自己行禮時，心裡總是有點不好意思又彆扭，因為後學行禮時，是想著自己；但後學想潘點傳師行禮時，是誠敬地感謝天恩師德。點傳師以行禮作揖，教導後學，要有一心一意的感恩心，才能真正懂得謙虛的意義。

반풍명점전사님 안녕히가십시오



◎ 중국어/한국어:장용용

하느님께서서는 항상 역경을 통해 인간을 성장시키는데,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그 과정을 보면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는 동시에 귀인도 옆에 두십니다. 반풍명 점전사는 바로 제 인생의 귀인이십니다.

반점전사님과 서로 안지는 몇 년 안 되었지만 서로 안지가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반점전사님의 얘기를 많이 하신 것을 들어왔는데, 성장한 후에 법당에서 반점전사님께서 수업하신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반점전사님을 볼 때마다 슈퍼 아이돌을 보는 것처럼 마음이 항상 흥분하게 되었고, 그 태모(態貌)와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겸손함에 찬탄하곤 했습니다. 반점전사님을 만난 인연을 회상하면 기쁘기도 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예의를 아시고 예의를 지키셨던 반점전사님

근래에 운이 좋게 반점전사님을 따라 한국도장에 다녔습니다. 예의를 지키셨던 반점전사께서는 한국도장의 전인들을 볼 때마다 재빠르게 꿇어서 참가하고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처음 본 저는 그냥 당황하여 반점전사님을 따라 꿇었습니다.

그 후에 장노전인께서는 제자들을 매우 아끼셔서 제자들이 안부를 물을 때 꿇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공부가 모자라서 이런 근본적인 예의를 전혀 몰랐는데 같은 도장에서 자라신 반점전사님께서서는 우리와 다르게 예의를 아셨고 예의를 지키셨습니다.

빈소에서 반점전사님의 사진을 볼 때 반점전사님께서 겸손하게 예를 표하신 모습이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읊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항상 자신만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반점전사님께서서는 읊하실 때에 성실하게 천은사덕에 감사해 하셨다고 꼭 믿습니다. 반점전사님의 태모(態貌)를 통해 후학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진정한 겸손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勤奮好學的你

點傳師您說您喜愛科學、也喜歡閱讀，小時候當送報童時，也順便學習了不少知識。長大後，一直希望能夠成立一貫道的圖書館，在圖書館內放很多的好書、經典，還想規劃一區專門擺放韓國道場書籍及金老前人著作。

點傳師也曾跟後學說，金老前人為弟子的成長，留下了很多的著作，那些都是很好的資料，期望後學能夠多學習。點傳師除了自我要求外，更常常期許後學們，要我們多看書、多研究聖賢經典、多成長。潘點傳師講道理，除了不離道之外，也非常用心。

點傳師接觸韓國道場後，也用心研究了許多韓國道場的書籍。對國籍不同、語言不同、思考模式不同的韓國道親而言，潘點傳師所講的道理，都能貼近韓國道親的心，也都能讓韓國道親們心生法喜。因為博學而體行，點傳師的道理，讓來自世界各地的道親，都能認識道、修道、行道。

謹言慎行的您

後學認識的潘點傳師，每次開口都謹慎選擇自己該說的話。對於他人是非之事，潘點傳師是不提意見的。不需要說話時，潘點傳師也就靜默守玄、養精蓄銳；上講台時，則總是精力充沛、歡歡喜喜地講道理。

後學向點傳師請教時，點傳師總是仔細且用著簡單的話語，不厭其煩地替後學解答；一遍又一遍地問後學，這樣聽懂了嗎？瞭解嗎？深怕自己講得太深的樣子，還會舉很多生活中的例子，或分享過去他們走過的故事。

好學的潘點傳師，也曾向後學推薦了有名的韓國書籍——《無所有》。當後學說知道時，點傳師也興奮地跟後學分享，他欣賞作者法頂禪師的灑脫與修為……。談話間，潘點傳師總是謹慎選擇有益、有意義的話。談話後的幾天，後學一定會接到潘點傳師的電話，向後學一一地更正自己在上一次的談話中，不妥的地方、並補充之前解釋得不夠周詳之處。後學若沒有接到電話，下一次見面時，點傳師也一定不會忘記。

부지런하시고 배우기 좋아하셨던 반점전사님

반점전사님께서서는 과학과 책을 읽는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신문을 배달하면서 신문에 있는 지식도 많이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장성한 후에 일관도도서관을 세우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도서관 안에 좋은 책과 경전을 많이 넣을 수 있고 한 구역은 한국도장에 대한 서적과 김노전인 저작을 둘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김노전인께서 제자 성장을 위해 많은 저작을 남겨주셨다고 하시며 그 저서들은 다 매우 좋은 자료이니 많이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반점전사님께서서는 자신만 요구하셨을 뿐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도 책을 많이 읽고 성현경전을 많이 연구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반점전사님께서서는 법당에서 수업하실 때 항상 도를 떠나지 않아서 도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니다.

반점전사님께서 한국도장을 접촉하신 후 한국도장의 서적을 많이 연구하셨기 때문에 국적, 언어, 사고방식이 다 달라도 반점전사님의 말씀이 한국도친들 마음에 돌아갈 수 있고 한국도친들도 반점전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박학하신 반점전사님의 말씀덕분에 온세계도친들은 도의 진리를 알게 되고 수도하게 되고 행도하게 됩니다.

언행을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셨던 반점전사님

제가 알고 있는 반점전사님께서서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하셨습니다. 남에 대한 시비에 의견을 내지 않으셨고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으셨으며 현관에 집중하여 정기를 함양하고 역량을 축적하셨습니다. 교탁에 서실 때엔 항상 정력을 모두 수업에 모으셨고 기쁘시게 수업하셨습니다.

제가 반점전사님께 가르침을 청했을 때 항상 쉬운 말씀으로 자세히 알려 주셨고 귀찮게 여기지 않으셨으며 한번 또 한번 저에게 이해되는나 알아들었는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자신이 너무 깊게 얘기할까봐 생활에 있는 보기와 고사(故事)를 들어가며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배우기 좋아하신 반점전사님께서서는 저에게 한국의 유명한 책(무소유)도 추천하셨습니다. 제가 안다고 했더니 반점전사님도 신나게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셨습니다. 법정스님이라는 작가의 활달과 수행을 찬탄하셨습니다. 얘기하실 때 반점전사님께서서는 유익하고 의미가 있는 말만 신중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얘기가 끝난 며칠 후 전화를 하여 저에게 지난 얘기 중에 하셨던 적당하지 않은 말을 지적하셨고 자세하게 하지 않았던 말도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못 받으면 다음에 만날 때 꼭 다시 얘기해 주는 것을 한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 與韓國河前人和白前人合影。

說法，就怕自己的言語會耽誤他人。同理，《無所有》作者法頂禪師的遺願，也是死後不再出版自己的著作。潘點傳師不隨意說話；即使說了話、做了決定，也會不斷反覆思考。

慈悲溫暖的您

那天，後學去探望潘點傳師，點傳師一看到後學就說：「妳上次上課的內容，盡妳所能，整理好後給我，那個資料可以成全很多人耶！」後學一聽，心裡滿是感動。點傳師！您是那麼慈悲！即使身體不適，心裡最惦記的事仍是道務。第二件、第三件交待的事也都是道務。對未來，您仍充滿希望與力量，讓後學感覺到，慈悲的您彷彿身體一健朗，馬上就要去成全道親、辦道務。

看著消瘦的點傳師，其實心中非常心疼。又聽到點傳師溫暖地說：「祝福妳！」後學真的不知道要如何表達心中感謝之意，就只能把您的期許放在心中；未來後學會帶著您的祝福，擦乾眼淚、努力加油！充滿希望，學習當個有智慧的人！跌倒了，後學也會勇敢爬起來，看著人生最重要的目標繼續前進。謝謝您給後學力量！謝謝您的支持！謝謝您一生的奉獻！謝謝一切一切！更感謝 天恩師德，賜給我們這麼優秀的潘風明點傳師。

永遠永遠感謝的潘風明點傳師，請一路好走。

점전사님께서 저에게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며칠 동안 설법하신 후 그냥 자신이 설법을 안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시간, 공간, 인간에 따라 일어난 일은 틀린 생각과 말이 생기고, 이 때의 생각과 말은 아무상황에 꼭 적용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시간, 공간에 있는 인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부처님께서 자신이 설법을 안 했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은 이유로, 법정스님께서도 자신이 죽은 후 자기가 쓴 책을 출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반점전사님께서 는 함부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하셔도 결정을 할 때는 생각을 여러 번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시고 따뜻한신 반점전사님

그날, 제가 점전사님을 문병하러 갔었습니다. 점전사님께서 저에게 지난 번 법당에서 수업하던 자료를 잘 정리해서 달라고 하셨고 그 자료로 많은 사람들을 성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감동으로 가득찼습니다. 자비로우신 반점전사님께서 몸이 편찮으셔도 도무만 생각하셨습니다. 두번째, 셋번째 말씀하신 내용도 도무였습니다. 그 때 반점전사님께서 미래에 대해 기대하기도 하시고 희망도 갖고 계셨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바로 도친들을 찾아 성전하려고, 도무를 처리하시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르신 점전사님을 보고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 때 반점전사님께서 따뜻한게 “축복해”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점전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릅니다. 반점전사님의 기대를 마음에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래에도 반점전사님께 축복 받은 것을 마음에 담고서 눈물을 닦고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을 갖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배우겠습니다. 넘어져도 용감하게 일어나고 제 인생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만 보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에 일생을 다 바치셔서 감사합니다. 전부 모두 감사합니다. 훌륭한 반풍명점전사님을 주셔서 천은사덕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감사하는 반풍명점전사님 안녕히가십시오.

